



# 걱정이다 걱정 (초등 3, 4단계)

뜨인돌어린이 | 동시 : 박신식, 박혜선, 양재홍, 이묘신, 한상순 / 그림 : 강영지



## 표지 탐색하기

1) 책의 앞표지 그림에 나타난 인물과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다룰지 예상해 보세요.

인물	
배경	

(2~4) 책의 뒤표지에 쓰여 있는 글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해보세요.

2) 부모님이 여러분을 걱정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언제인가요?

⇒

3)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위험했던 순간이 있나요? 가정, 학교, 거리 등에서 자신이 겪었거나 목격했던 일들을 써 보세요.

⇒

4) 여러분은 자신이 '안전 의식'이 높다고 생각하나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 걱정이다 걱정 (초등 3, 4단계)

뜨인돌어린이 | 동시 : 박신식, 박혜선, 양재홍, 이묘신, 한상순 / 그림 : 강영지



## 시의 장면을 만화로 표현하기

### 국어 교과\_독서 단원 연계

책을 즐기며 읽기

- 장면을 떠올리며 읽기
- 상상하며 읽기
- 인상 깊은 부분을 찾으며 읽기
- 다른 작품과 연결 지으며 읽기
- 자신의 삶과 연결 지으며 읽기

※ 다음 시를 읽고, 각 연에서 떠오르는 장면을 만화로 표현해 보세요.

독 박신식	시를 읽고 떠오르는 장면을 만화로 표현하기
<p>화분 속 꽃봉오리 빨리 피어나라고 하루에 다섯 번 물을 주고 또 주었어요</p>	

<p>그런데 나무가 죽었어요 뿌리가 먹지 못한 물이 고이고 고여 뿌리가 썩었대요 물이 독이 되었대요</p>	
<p>감기에 걸려 콜록거려서 빨리 나으려고 하루에 다섯 번 약을 먹고 또 먹었어요</p>	
<p>그런데 더 아파요 병원과 싸우는 약이 쌓이고 쌓여 병이 되었대요 약이 독이 되었대요</p>	



## 걱정이다 걱정 (초등 3, 4단계)

뜨인돌어린이 | 동시 : 박신식, 박혜선, 양재홍, 이묘신, 한상순 / 그림 : 강영지



### 시어를 고르고 비교하기 ①

※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제목: 빙판길

미끌미끌

쭈~쭈~

빙판길은 재미있어요

-주머니에서 손 빼고

-뛰지 말고 살살

-조심조심 천천히

내가 장난치며 걸을 때마다

엄마의 잔소리도

발자국처럼 따라와요

1) 위의 시에서 '제목'을 다시 지어 보세요.

⇒

2) 자신이 지은 제목과 글쓴이의 제목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보세요.

⇒



# 걱정이다 걱정 (초등 3, 4단계)

뜨인돌어린이 | 동시 : 박신식, 박혜선, 양재홍, 이묘신, 한상순 / 그림 : 강영지



## 시어를 고르고 비교하기 ②

※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따로 한상순

( )보다 빠르다

아폴로눈병

가려운 눈

딱 한 번 비뻬을 뿐인데

( )에도 못 가는 따로

( )에도 못 가는 따로

( )에도 못 가는 따로

아폴로눈병이

다른 데로 건너가지 않도록

난

따로가 되었다

( )도 따로

( )도 따로

( )도 따로

1) 위의 시에서 빈 칸에 어울리는 시어를 생각해 보고, 시의 주제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원작과 다른 자신만의 표현으로 바꾸어 써 봅시다.

2) 자신이 생각한 시어와 글쓴이가 쓴 원래의 시어(책의 94쪽)를 비교해 보고 느낌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적어 보세요.

⇒



# 걱정이다 걱정 (초등 3, 4단계)

뜨인들어린이 | 동시 : 박신식, 박혜선, 양재홍, 이묘신, 한상순 / 그림 : 강영지



## 시의 운율과 표현 방법 이해하기 ①

※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 점점점 박혜선

간질간질 실바람 점점 남실남실 남실바람 되고  
 남실바람 점점 건들건들 건들바람 되고  
 건들바람 점점점 와장창 센바람 되고  
 센바람 점점점점 세상을 뒤흔드는 싹쓸바람 되고  
 싹쓸바람 점점점점점 세상을 삼켜 버리는 태풍이 된다

1) 위의 시는 시인이 나눈 행과 연을 구분하지 않고 줄글처럼 쓴 자료입니다. 아래의 빈칸에 자신의 마음대로 시의 행과 연을 구분해 보세요.

시 '점점점'의 행과 연을 자유롭게 구분해서 쓰기

2) 자신이 행과 연을 나눈 시와 원작(책의 44쪽)을 비교해 읽고, 어떤 부분이 태풍이 올 때의 무섭고 다급한 상황을 더 잘 표현했는지 생각해 봅시다.

⇒



## 걱정이다 걱정 (초등 3, 4단계)

뜨인돌어린이 | 동시 : 박신식, 박혜선, 양재홍, 이묘신, 한상순 / 그림 : 강영지



### 시의 운율과 표현 방법 이해하기 ②

※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입 박혜선

질푼질푼

진흙 갯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속속 빠져든다

내 신발을 꼰꺼

내 양말을 꼰꺼

심지어 내 바지까지

㉠( )처럼 무시무시한

갯벌의

입!

1) 위의 시에서 화자가 갯벌을 사람처럼 입이 있다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2) 만약 ㉠의 빈칸에 시어를 추가한다면, 어떤 시어를 넣을 수 있을까요?

⇒



# 걱정이다 걱정 (초등 3, 4단계)

뜨인돌어린이 | 동시 : 박신식, 박혜선, 양재홍, 이묘신, 한상순 / 그림 : 강영지



## 시의 화자와 입장 바꿔 생각하기 ①

※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한 줄로	양재홍
불이야, 불! 불이 났어요!	출입문으로 이끄는 선생님 따라 우리 모두 한 줄로 줄줄
조금만 놀라고 하던 일 멈추고 아까운 것도 놔두고	시냇물처럼 고불고불 흐르면 환한 운동장이 맞아 줄 거예요

1) '한 줄로'에서 화자가 하려는 말은 무엇인가요?

⇨

2) 위의 시에 등장하는 학생들이 '화재 안전 수칙'을 만들어 교실에 게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학생들의 입장이 되어 안전 수칙 내용을 써 봅시다.

### 화재 안전 수칙

첫째,  
둘째,  
셋째,



## 걱정이다 걱정 (초등 3, 4단계)

뜨인돌어린이 | 동시 : 박신식, 박혜선, 양재홍, 이묘신, 한상순 / 그림 : 강영지



### 시의 화자와 입장 바꿔 생각하기 ②

※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내 입이 도둑      양재홍

삼촌이 사 준  
은빛 피라미 같은  
새 자전거

자물쇠 비밀 번호는  
외우기 쉬운  
1 3 5 7 9

친구들한테도  
말한  
1 3 5 7 9  
풀 때도 크게 말한  
1 3 5 7 9

어느 날  
그림자도 없이  
사라진 은빛 피라미

만약 여러분이 위 시에 등장하는 ‘삼촌’이라면 화자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는지 써 보세요.

⇒



# 걱정이다 걱정 (초등 3, 4단계)

뜨인돌어린이 | 동시 : 박신식, 박혜선, 양재홍, 이묘신, 한상순 / 그림 : 강영지



## 패러디 시 쓰기

※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 내 말은 박혜선

풀밭이 방석처럼 폭신평신타고  
아무 곳에서나 벌렁 눕지 마  
풀밭에서 잠자던 풀벌레 놀라  
널 확 할퀴어 버릴지도 몰라

꽃향기가 솔솔솔  
네 코를 간질이더라도  
가까이서 흠흠거리지 마

꽃잎 속에서 점심 먹던 꿀벌 놀라  
널 콧 깨물지도 몰라

그러니까 내 말은  
풀밭에도  
꽃밭에도  
네 눈에 안 보이는 다른 친구들이  
먼저 놀러 왔을 수도 있다는 말이지

1) 패러디는 어떤 작품의 소재나 작가의 글 쓰는 스타일을 흉내 내어 재미있게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말은'이라는 시를 패러디한 아래 <보기>의 내용을 보고, 원작과 패러디 작품의 공통점, 차이점을 파악해 보세요.

### <보기>

봄이 알록달록하다고  
노랗고 화려한 옷을 흉내 내지는 마  
화단에서 잠자던 풀벌레가 놀라  
널 확 할퀴어 버릴지도 몰라

봄의 향기가 폴폴폴  
네 코를 간질이더라도  
꽃보다 진한 향수를 뿌리지는 마  
점심 먹던 꿀벌이 착각해  
널 확 깨물어 버릴지도 몰라

공통점	
차이점	

2) 『걱정이다 걱정』에 실린 작품 중, 여러분이 가장 재미있게 읽은 시를 찾아, 시의 전체 또는 부분을 패러디해 보세요.

- 가장 재미있게 읽은 시는 무엇인가요?

⇨

- 패러디하여 쓰기



# 걱정이다 걱정 (초등 3, 4단계)

뜨인돌어린이 | 동시 : 박신식, 박혜선, 양재홍, 이묘신, 한상순 / 그림 : 강영지



## 시를 이야기로 바꾸기

※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이상한 날 이묘신

필통 던지고 놀다가

소연이 얼굴에 맞았다

실내화 가방 걸지 않아서

민서가 걸려 넘어졌다

화장실에 가려고 뛰다가

준형이랑 부딪쳤다

추워서 창문 닫다가

옆에 있던 민수 손을 짚었다

오늘 하루 네 번이나

눈물 속 빠지게 혼났다

짜증 나 책상을 발로 찼는데

발가락이 불난 것처럼 얼얼했다

책상도 나를 혼내는

이상한 날이다

1) 위의 시를 읽고 등장하는 화자가 어긴 교실 안전 수칙을 찾아서 써 보세요.

⇒

2) 위의 시를 일기로 바꿔서 써 보려고 합니다. 시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 중, 누구의 관점에서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재구성하고 싶은지 생각해보고, 이야기의 서술자를 결정해 보세요.

• 누구의 관점에서 재구성할 것인가요?

⇒

• 이야기의 서술자는 누구로 정할 것인가요?

⇒





# 걱정이다 걱정 (초등 3, 4단계)

뜨인돌어린이 | 동시 : 박신식, 박혜선, 양재홍, 이묘신, 한상순 / 그림 : 강영지



## 경험과 생각을 떠올리며 시 쓰기

※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늘 존재합니다. 『걱정이다 걱정』에 실린 ‘안전 동시’를 읽고, 평소에 무심코 넘겼던 사소한 일들을 떠올려 봅시다.

1)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자연재해를 예방해야 할 때, 학교에서 사용하는 물건과 학교의 장소들에서 조심해야 할 때, 교통 시설을 이용할 때, 자신이 위험하다고 느꼈던 일은 무엇인가요? ⇨

2) ‘안전’과 관련된 시를 쓴다면 어떤 내용을 주제로 하고 싶은가요?  
⇨

3) 자신의 시에서 말하는 이(화자)를 정하고, 여러분이 기자가 되었다고 가정하여 자신이 만든 화자를 인터뷰하는 글을 써 보세요.

자신이 쓰고 싶은 시의 화자는 누구인가요?
시의 화자를 대상으로 인터뷰하는 글을 완성해 보세요.
질문: ‘안전’과 관련된 경험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 무엇인가요?
답변:
질문: 더 묘사하고 싶은 인물, 배경, 소리, 냄새, 촉감, 맛 등이 있나요?
답변:
질문: 그때의 감정은 어떠했고, 그런 감정이 생긴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질문: ‘안전 의식’을 깨닫기 위해 지켜야 할 수칙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답변:



# 걱정이다 걱정 (초등 3, 4단계)

뜨인돌어린이 | 동시 : 박신식, 박혜선, 양재홍, 이묘신, 한상순 / 그림 : 강영지



## 시 쓰기&평가하기

1) 앞에서 정리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 동시를 한 편 써 보세요.

제목 :

2) 아래 항목에 따라 위에 쓴 자신의 시를 평가해 보세요.

항목	점수	이유
연과 행은 잘 나누어져 있나요?		
자신의 경험이 떠오르거나, 시의 장면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나요?		
인상적이고 재미있는 표현이 많은가요?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은 없나요?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은 생각이 드나요?		
최종 평가:		



# 걱정이다 걱정 (초등 3, 4단계)

뜨인돌어린이 | 동시 : 박신식, 박혜선, 양재홍, 이묘신, 한상순 / 그림 : 강영지



## 정답과 해설

1쪽	<p>1) (예시답안) •인물 : 어린 아이가 안전모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자전거나 보드를 타고 외부에서 활동할 때의 사건이 등장할 것이다. / •배경 : 표지의 색상은 어린이 보호 구역을 상징하는 ‘노란색’이다. 배경에서 작은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 비와 관련된 자연 재해 때문에 걱정이라는 의미인지 궁금해진다.</p> <p>2) (예시답안) 식사를 하지 않고 간식을 더 많이 먹거나, 아이스크림처럼 찬 음식을 먹을 때 건강을 걱정해주는 것 같다.</p> <p>3) (예시답안) 휴대 전화만 보다가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뀐 줄도 모르고 길을 건너려고 한 적이 있다.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었다.</p> <p>4) (예시답안) 안전 의식이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 안전 수칙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일상생활에서는 잘 지키지 못하거나, 사소하다고 생각해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p>
2~3쪽	<p>답안 생략. (가이드) 이미지를 상상해보면 시의 내용을 더 선명하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의 글감, 상황, 분위기 등을 만화로 표현해 보고, 시어와의 관계를 따져 말풍선을 넣어 보면 더욱 재미있고 깊이 있게 시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p>
4쪽	<p>1) (예시답안) 살살 조심조심 천천히</p> <p>2) (예시답안) 빙판길을 걷고 있으면 어머니의 잔소리가 따라온다는 표현이 재미있다고 생각했다. 의태어로 제목을 바꾸면 무슨 내용인지 독자들이 더 궁금해 할 것 같다.</p>
5쪽	<p>답안 생략. (가이드) 자신의 경험이 담긴 시어로 바꾸어 쓰면 더 친근하고 시가 어렵지 않게 느껴집니다.</p>
6쪽	<p>1) 답안 생략. 자유롭게 표현해 보세요.</p> <p>2) (가이드) 원작에서 바람의 크기가 커질 때마다 ‘점’이라는 글자의 수도 많아져서 재미가 있다. 행과 연을 나누면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고, 리듬감이 더 잘 느껴진다.</p>
7쪽	<p>1) (예시답안) 진흙 속으로 발이 빠지는 갯벌에도 입이 있다고 표현했다. 음식물을 순식간에 삼켜버리는 입처럼 갯벌 안으로 빠질 것 같은 으스스한 느낌이 들었다. 인상 깊은 느낌을 주기 위해 사람이 아닌데도 입이 있다고 갯벌을 의인화한 것이다. 2) (예시답안) 바이러스</p>

8쪽	<p>1) (예시답안) 화재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침착하게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행동하고, 질서를 지키며 신속하게 대피해야 한다.</p> <p>2) (예시답안)</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p><b>화재 안전 수칙</b></p> <p>첫째, 전열 기구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요.</p> <p>둘째, 화재를 신고할 때는 장소를 정확히 이야기해요.</p> <p>셋째, 화재를 예방하고 가스 기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요.</p> </div>
9쪽	<p>(예시답안) 개인 정보가 유출되면 범죄자에게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주의해야 해. 모르는 사람이 보낸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은 열지 않아야 하고, 인터넷을 활용할 때도 개인 정보가 저장되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한단다.</p>
10~11쪽	<p>1) (예시답안) 공통점 : 야외 활동을 할 때 지켜야 할 안전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한다.</p> <p>/ 차이점 : 야외 활동을 할 때 당부하고 싶은 말을 바꾸었다. 원작에서는 먼저 나들이 온 풀벌레, 꿀벌들을 놀라게 하지 말라고 표현하며 ‘풀밭에 함부로 눕지 않기, 벌을 자극하지 않기’ 등을 당부한다.</p> <p>패러디한 내용에서는 봄의 색깔과 향기를 함부로 흉내 내지 말라고 표현하며, ‘야외에서 밝은 옷을 입는 것, 향수와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은 피해달라고 당부한다.</p> <p>2) 답안 생략. (가이드) 시 전체를 패러디해도 좋지만, 어렵다면 먼저 부분을 패러디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패러디를 할 때는 시어의 반복, 글자 수, 주제 등을 먼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원작에서 가장 재미있게 느껴지는 구절의 특성을 살펴보고,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넣어 다양한 표현으로 바꾸어 봅시다.</p>
12~13쪽	<p>1) (예시답안) 학용품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기, 물건을 제자리에 두기, 교실에서 뛰거나 장난치지 않기, 창문을 닫거나 열 때 주변 살피기</p> <p>2) 답안 생략. (가이드) 서술자를 소연이, 민서, 준형이, 민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책상을 서술자로 설정해, 사물의 입장에서 아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지 생각해 봐도 좋습니다.</p> <p>3) 답안 생략. (가이드) 시를 읽고 시 속 주인공이 되어 일기를 써 보는 활동입니다. 일기글로 바꿔 보면 시 속 상황을 이해하고, 등장인물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통에 얼굴을 맞은 소연이의 기분은 어떠했을지, 교실에서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 오늘 하루뿐인지, 안전 수칙을 잘 지키지 않는 친구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등 서술자가 되어 그날의 일들과 감정을 생각해 보고 글을 써 봅시다.</p>
14~15쪽	<p>답안 생략.</p>